

CES 2026

박정원 “에너지 솔루션으로 AI 시장 선도”

〈두산그룹 회장〉

DOOSAN

주요 경영진 美 현장경영 나서
박 회장, 글로벌 전력사업 강조
그룹 차원 해외 공개채용 실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현장을 찾아 “두산의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으로 AI 시대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7일(현지시간) 박지원 그룹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 스캇박 두산팍켓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CES 웨스트홀에 ‘Pow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오른쪽)과 박지원 그룹부회장(왼쪽)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에서 두산 부스에 전시된 가스터빈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두산그룹

ered by Doosan’을 주제로 마련된 두산그룹 부스를 방문했다. 부스에는 AI 데이터센터용 중심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솔루션과 AI 기반 신기술이 집중 전시됐다.

박 회장은 부스를 둘러본 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고객 여건에 따라 에너지 공급 방식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각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맞춤형 전략으로 에너지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CES 일정과 맞물려 현지에서 열린 공개채용도 직접 챙겼다. 두산이 그룹 차원에서 해외 공개채용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 대상은 미국 대학 유학생 가운데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졸업 예정인 공학계열 전공자로, AI를 비롯해 가스터빈·원자력·로봇틱스 등 두산의 핵심 사업과 연관된 R&D 직무가 중심이다.

박 회장은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두산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열정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주(州) 정부 대표단 일행이 8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소 야드를 둘러보고, 실제 선박 건조 현장을 참관했다(왼쪽부터 최한나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 라자(T.R.B Rajaa)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 /HD현대

HD현대 인도 정부 대표단 맞이

HD현대는 8일 라자(T.R.B Rajaa) 인도타밀나두주 산업부장관과 다가(Gaurav Daga) 타밀나두 투자청 상무 등 대표단 5명이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HD현대중공업 상선 및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며 선박 건조 현장을 참관하고, 자동화 설비 등 첨단 생산 시스템을 포함한 조선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살폈다.

최한나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은 “이번 타밀나두 주 정부 관계자들의 방한은 조선산업 육성에 대한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도와외의 조선·해양 분야 협력 강화는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류재철 “수익성 기반 성장구조 구축”

〈LG전자 CEO〉

LG전자

류 CEO, 사업전략·포부 밝혀
“고성과 포트폴리오 전환 속도”

류재철 LG전자 CEO가 ‘근원적 경쟁력 확보’와 ‘고성과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수익성 기반 성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류 CEO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O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전략과 포부를 밝혔다.

그는 “LG전자는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재 처한 경쟁의 생태계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속도와 강한 실행력을 가져야만 생존



류재철 LG전자 CEO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CEO는 ▲어떠한 경쟁에도 이기는 근원적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성능 포트폴리오 전환 ▲AX로 변화의 속도와 실행력을 혁신해

신해 수익성 기반 성장을 만드는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업(業)의 본질에 해당하는 ‘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이나 초격차를 만드는 ‘R&D·기술’ 리더십 등이 근원적 경쟁력에 해당한다.

우선 지난 수십여 년간 노하우나 경쟁력으로 여겨왔던 관성에서 벗어나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 생태계 대비 동등 이상 속도를 갖추고 제품력, 품질, 디자인, 원가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R&D·기술 영역은 유망 분야보다는 고객가치, 사업 잠재력,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위닝테크’를 선정, 트렌드를 주도하고 이기는 경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간다.

수요 둔화, 경쟁 심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방식과 사업모델 혁신 기반의 조성하고 포트폴리오 전환은 실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 ▲B2B(전자, HVAC 등) ▲Non-HW(구독, 웹OS 등) ▲온라인 사업(D2C, 소비자직접판매) 등 ‘질적 성장’ 영역이 대표적이다. 질적 성장 영역이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29% 수준에서 지난해 하반기 45%까지 올라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비중은 21%에서 90%까지 높아졌다.

전장 사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높은 수주잔고 기반의 성장을 이어 나감과 동시에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를 넘어 AIDV(인공지능중심차량) 역량 주도에도 박차를 가한다. HVAC 사업은 AIDC에 적용되는 냉각 솔루션을 앞세워 미래 성장기회를 확보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모비스, SDV 등 글로벌 협력체계 고도화

퀄컴과 자율주행 분야 등 협력 MOU

현대모비스가 AI로봇틱스와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미국 반도체 선도기업 퀄컴과 SDV,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와 퀄컴은 각 사가 보유한 시스템 통합, 센서퓨전, 영상인식, 시스템 온 칩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 ADAS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의 제어기와 소프트웨어에 퀄컴의 반도체칩을 적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도 가속화한다. 이

를 통해 성능과 효율성, 안정성을 높인 SDV 통합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특히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에 최적화된 첨단기술을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니즈에 특화해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의 자동차 시장이 소형차 중심에서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되며 ADAS 보급률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로봇틱스 분야 신규 진출을 선언한 뒤 확보한 첫 계약이다.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핸드 그리퍼, 센서, 제어기, 배터리팩 등 고성능로봇틱스 부품으로 설계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위아, 열관리 시스템 부품 3종 공개

‘모빌리티 열관리 전문가’ 비전 제시

현대위아가 모빌리티 열관리 부품 신제품을 공개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열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현대위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새롭게 개발한 열관리 시스템 부품 3종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ITMS 신제품은 자동차 내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여러 열관리 부품과 기능을 하나의 부품으로 집약한 모듈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총 10개의 포트에 구성된 ‘데카 밸브’ 기술을 적용, 열관리 효율을 크게 높였다.

두 개의 라디에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쿨링모듈도 공개했다. 이 쿨링모듈은 현재 사용되는 모듈 대비 두께가 20% 줄었고, 무게는 7% 감소했다. 덕

분에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해 프런트 트렁크의 활용도도 높였다.

기존 HVAC 패키지의 높이를 30% 이상 줄인 슬림 HVAC도 함께 선보였다. 크기를 대폭 줄인 만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고, 경량화를 통해 전비도 향상했다.

현대위아는 2032년까지 글로벌 열관리 전문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밝혔다. ▲친환경 ▲고성능 ▲고효율 ▲쾌적·편의성을 갖춘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현대위아 TMS사업부 김남영 전무는 “데카밸브 ITMS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제어, 환경악영향이 적은 새로운 냉매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며 “CES에 선보인 슬림 HVAC과 같이 부피와 무게를 지속적으로 줄여 전비 개선과 공간 활용도 극대화를 모두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S전선-한국전력 자산관리 솔루션 사업화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제조 및 운영 통합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올해 사업이 본격화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해당 협력 모델이 최초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LG이노텍-UTI 유리기판 기술개발 맞손

LG이노텍이 유리 가공 전문업체 ‘유티아이(UTI)’와 함께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유리기판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티아이(UTI)와 연구개발 협력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이노텍은 유티아이와 유리기판의 강도를 높이는 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의 판을 바꿀 기술”이라며 “LG이노텍은 50년 동안 이어온 기판소재 기술에 유리 정밀가공 기술을 더해, 탁월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